

103회기 결산

영성회복, 전도운동 불지피고 교단 위상 정립
헌장수호 의지 재확인 총회 권위 다져

그 어느 회기 보다 평온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103회기는 10 차례의 임원회의와 6차례의 실행위원회를 거치며 회기를 마감하고 있다. '다시 성결로'라는 가치 아래 사중복음을 통한 영혼구원을 지향하며 자랑스러운 교단을 만들겠다고 출발한 103회기는 복음의 열정을 되찾기 위해 힘쓴 한 회기로 평가 받으며 크고 작은 사업과 실적 등을 이루어냈다.



103회기 운영의 키워드는 'Again Holiness'였다. 주님의 지상명령인 영혼 구원을 위해 전국지방회별로 사중복음 부흥회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회를 순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취임과 함께 사중복음 연합성회는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 경기지방회는 지방회 설립 후 가장 많은 성도들이 참여한 성회로 기록되었으며 100여 명이 함께한 연합성가대의 웅장한 하모니는 참석자들에게 큰 은혜를 선물하기도 했다. 사중복음 연합성회는 국내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미주지역총회 동부지방회 등에서 연이어 개최되었으며 특별히 한국에서 노윤식 목사가 초청돼 성회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전도운동으로 연결되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수 있었고 교단구성원들의 영성회복과 교단성 회복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로 교육부서가 줄어들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03회기는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스스로 되새기며 한 회기를 다음세대 부흥방안을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교육국과 교육부이동부, 청소년부)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 양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노력했다.

△ **농어촌교회와 은퇴목회자 위한 바자회 '성결인대축제 대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교단차원의 대규모 행사로, 안양시와 의왕시, 안양시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관내 5개 복지기관 등이 참여해 6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되며 성대하게 개최됐다. 양일간 진행된 '성결인대축제, 사람의 바자회'는 성결인들만의 축제를 넘어 성결대학교가 위치한 안양시 시민들까지도 아우르는 축제로 행사장 내에 아이특별대도 꾸며져 성결인 및 안양시민들이 삼삼오오 가족 혹은 친지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았다.



특설부대에서는 행사기간 내 넓어진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진행됐다.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매직쇼, 남북통일예술단 공연, 맑은물소리 색소폰 찬양단, CCM 가수 합부영과 시와 그림의 찬양 등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폐회식에 앞서 진행된 우리 동네 노래자랑에는 17개 팀이 참여해 푸짐한 상품이 수상자들에게 돌아갔으며 대형가전제품들이 경품으로 제공된 흥운권 추첨도 연이어 진행되었다. 60여 개의 부스가 정렬된 바자회 부스에는 친환경 제품부터 의류, 신발, 건강보조식품 등 여러 가지 물품들을 들고 나와 사고 파는 벼룩시장, 떡볶이, 김밥, 짜장면, 봉어빵 등 다양한 음식이 마련된 먹거리장터, 수공예품이나 외국에서 직접 들어온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 프리마켓까지 다채로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들이 넘쳐났다.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부족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예성협동조합과 성결대학교가 함께 지역민들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교단 내 교육기관의 장학사업에 일익을 감당할 수 있었으며 1회성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개발로 인해 어려움과 피해를 보고 있는 개 교회들을 위한 총회차원의 관심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법률적인 지원과 함께 컨설팅, 관할기관 면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재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개 교회들이 없도록 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이상화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류제곤 권순달 김만수 최윤영 이규현 윤기웅 배상도 목사, 박근주 이장호 이천 박정식 장로, 자문위원으로는 이음건축사 최수호 소장이 임명되었다. 향후 이를 통해 재건축 시 조연과 법률자문 등의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건축 세미나 등을 적극 지원해 목회자들이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04회 총회이슈- 임원선거

목사부총회장 선거 양강 구도가운데 안개 속 형국
교단 발전 미래 비전 다양한 공약 내세워



좌측부터 부회계 후보 정 현 장로, 회의록서기 후보 허상범 목사, 부서기 후보 전승환 목사, 부총회장 후보 이광선 장로, 부총회장 후보 이상문 목사, 총회장 후보 홍사진 목사, 부총회장 후보 이종만 목사, 서기 후보 김성은 목사, 서기 후보 이규현 목사, 부회계 후보 한정수 장로

104회 총회에서 최대 관심사는 단연 임원선거이다. 104회 총회 임원선거에는 모두 10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총회장 단독 후보 홍사진 목사를 비롯한 부총회장 후보 기호1번 이종만 목사, 기호2번 이상문 목사, 장로부총회장 후보 이광선 장로, 서기후보 기호1번 이규현 목사 기호2번 김성은 목사, 부서기 후보 전승환 목사, 회의록서기 후보 허상범 목사, 회계 후보 한정수 장로, 부회계 후보 정현 장로다. 이들은 각각 교단발전과 총회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대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부총회장 후보 기호1번 이종만 목사는 따뜻함과 실무형 임원을 내세우고 효율성과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목사는 이를 위해 화합과 통합의 교단을 표방하며 구체적인 복지 모델인 주택 의료 생활비 지원 등의 정책을 밝혔다. 책임있는 경영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총회신한 모든 기관이 투명한 운영 원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며 생산성 공공성을 갖춘 운영 시스템으로 구성해 나가겠다는 전략도 제시하며 모두가 신뢰하는 교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목사는 광주전 남지방 경목위원을 지냈으며, 광주북부경찰서 경목실장 광주CTS기독교방송 위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 생명수생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 부총회장 후보 기호2번 이상문 목사는 총회장을 지낸 경험과 연륜을 내세우며 '베네딕토 프로젝트'로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 은퇴준비, 다음 세대를 위한 교단의 미래준비 그리고 교단 내 연합과 협력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

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단적 장학금 후원체계, 영암 채플관의 신속한 건립, 순사역자 양성을 위한 대책 등을 밝혔으며 교단 내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없애기 위해 모든 담임목사의 총회 대의원 파송 제도의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목사는 100회기 총회장,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한국교회부활절연합회배 대회장 등을 지냈으며 두란노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 서기 후보 기호1번 이규현 목사는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하여 총회성결교신학교 신학처장, 성결교신대원 이사, 예성부흥사회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성결대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마포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 서기 후보 기호2번 김성은 목사는 Lutheran school of Theology at Chicago대학원에서 교회사를 전공했으며, 국선위 위원장, 금천구 교구협의회 회장을 지냈으며, 가야대책임원 시흥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 **단독임후보자 무난한 당선 예상**
복수의 후보가 등록하며 치열한 경선이 불가피한 직이 있는 반면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후보도 있다. 총회장의 경우현장에 따라 현 부총회장 홍사진 목사가 단독임후보해 이변이 없는 한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되며, 장로부총회장 이광선 장로, 부서기 후보 전승환 목사, 회의록서기 후보 허상범 목사, 회계 후보 한정수 장로, 부회계 후보 정현 장로가 경쟁자 없이 유일한 후보로 출마했다. 총회장을 제외한 단독으로 출마한 이들도 신임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교회 창립 53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 모시는 글 |

할렐루야! 신월동성결교회가 창립 53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임직식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예배와 임직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오니 함께 기도해주시고, 오셔서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 담임목사 고신원 외 성도 일동 —

● 은퇴장로 추대

권대인 윤경익

● 은퇴권사 추대

김명환 김봉금 김재희 나복수 서명예 송영희 장윤자 지경희

● 장로장립

김현수 조영선 문신순 안홍순 유영미 현은하

● 권사취임

송순재 양인오 임선영 임양순

● 권사취임

김경섭 박대영 조동훈 김윤미 박지혜

● 명예권사

김성국 노정웅 김성례 김인자 김재순

신월동교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4길 9 (02) 260 3-2427, FAX 2698-3549